

'96 여성장애인대회

주제: 여성장애인과 가정

일시: 1996년 10월 11일(정오 12시) ~ 10월 13일(오후 4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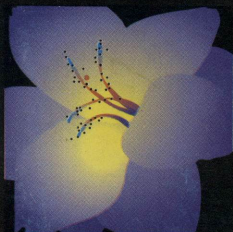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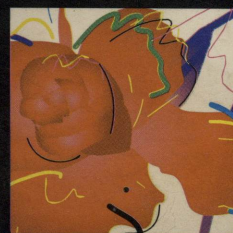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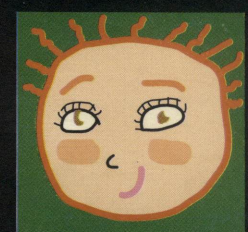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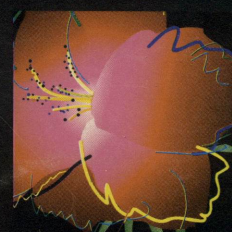
장소: 보라매 공원 ·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

주최: '96 여성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

주관: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(빛장을 여는 사람들)

후원: 국회 여성특별위원회, 기독교방송, 보건복지부, 시민단체협의회, 정무 제2장관실, 한겨레신문사, KBS, 한국여성단체연합,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한국장애인공통대책협의회 (가나다 순)

협찬: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



- 여성장애인은 사회의 모든 사항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'힘권' 을 갖는다.

권익과 관련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취할 수 있고 정보와 정치적 과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를 억압하는 상대와 싸우기 위한 정치적, 사회적 '힘'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민권은 법률처럼 지켜져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'평등권' 을 갖는다.

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영역과 부문에서 여성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등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에서 '선택권' 을 갖는다.

선택을 위한 결핍없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장소와 방법, 일상의 결정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모든 시설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하며 모든 정보에 대한 '접근권' 을 갖는다.

활동을 제한하는 방해물들은 어디든지 제거되어야 하며 필요한 장치들은 설치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권인 '교육권' 을 갖는다.

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 제도들에서 모든 독소 조항들이 삭제돼야 하며 특히 교육받지 못한 성인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'안전권' 을 갖는다.

자기방어 훈련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. 형사 사법 제도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 피해자를 위한 결핍없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유익한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알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'노동권' 을 갖는다.

고용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에 맞서는 보장뿐 아니라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. 이를 위해 직업훈련과 같은 지지적 보조가 필요하며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다.

- 여성장애인은 숙련되고 믿음직한 의료보호 서비스를 통한 '건강권' 을 갖는다.

모든 의료시스템에 접근가능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건강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. 의료 전문기관은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알아야 하고 이들의 신체를 존중해야 하며 건강에 대한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. 아무런 편견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가족 내의 역할과 기정을 창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'가족권' 을 갖는다.

가족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가족 활동안에 포함되어야 한다. 기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신체적, 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- 여성장애인은 권리를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'자조자립권' 을 갖는다.

여성장애인에 대한 공동사회의 태도와 자원, 프로그램은 장애정도나 특성에 개의치 않고 지원되어야 하며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보조, 소득후원 등을 공급, 증진하여 가능한 독립적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.